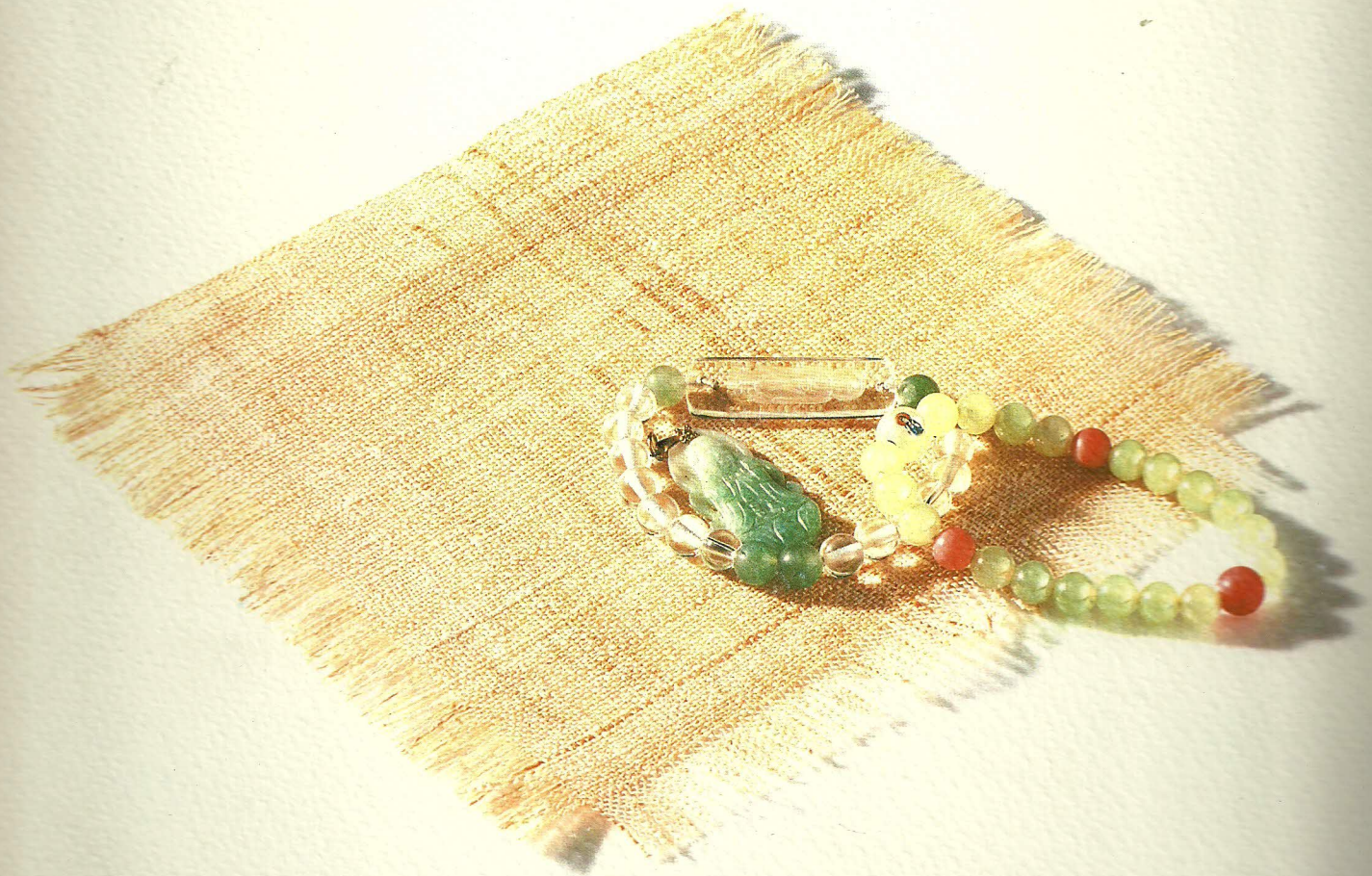
이윤자 춤 - 화두



1994. 3. 29(화)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강당

李允子춤 - 話頭

태 평 무
諸行無常 - 늘 새로운 현재여!
히말라야雪音

1994. 3. 29 오후 7 : 30
부산문화회관대강당

주관 : 燕亭 춤 모임
후원 : 부산대학교 예술대

●이 공연은 부산대학교 학술연구 조성비 지원에 의해 공연됨.

● 머리에

먼 그대에게./
어느새 봄이 우리들의 가슴 속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인의 말씀처럼 봄을 찾아서 동쪽으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분의 말씀처럼 서쪽에 한메가 이미 눈속을 뚫고 나왔으니까요.

이제 춤과 더불어 불혹 나이를 저만치 벗어나고 있습니다.
춤이 무엇인지, 왜 춤을 추는지, 춤추는 자는 무엇인지,
왜 춤을 보여주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춤을 추는지……
저에게 있어 춤은, 춤 그 자체는 생애를 건 화두입니다.
춤이라는 화두는, 먼 그대가 아다시피, 함박눈 내리던 날 나에게
내려지던 것입니다.

가슴 속 깊은 곳에서 고동쳐 오는 한번도 가 본 적없는 성산,
히말라야에서 번져오는 고요하고 힘있는 그 소리
그 소리 소리들이 저의 온 몸을 감싸고
급기야는……

화두 – 춤이 무엇인고?
춤추는 자는 무엇인고?
이것이 무엇인고(是甚麼)?

이 화두를 향해 정진할 것입니다.

이 한 몸
춤과 함께 정화소진되고 한 줌 재로 한 줄기 바람에 실려
이 산하 대지에 흩어져 그들과 진정으로 한 몸이 되고자 하는
바램입니다.

다시, 먼 그대에게./

갑술년 봄
李 允 子

추신 :
삼월이십구일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공연될"이윤자 춤 – 화두"
첫무대는 저의 다짐을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보아주시면 큰 영광이겠습니다.
이번 공연은 제가 몸담고 있는 부산대학교의 "학술연구 조성비"
에서 지원이 되었고 제자들의 모임인 "연정 춤 모임"의 수고로
이루어 졌습니다.

*화두(話頭)
"禪"중에서 참선 수행자에게 참구하는 과제로 주어지는 지극한 이치를 표시하는 조사의 言句나 문답이나 동작.

● 諸行無常 - 늘 새로운 현재여!

안무 / 이윤자
시 / 석지수
음악 / 신영순
춤 / 한광수 , 전영주 , 이현주
최병재 , 강경림 , 김숙희
박길미 , 김영숙 , 박지애
이경림 , 이정경 , 최승빈
허경미, 나민재 , 황재용
이동재 , 이경수

생명을 받으면서 열리는 세상
생노병사 문지방 어둠과 밝음
희노애락 애오욕 넘치는 파도
두려움과 회한이 휘감아 돈다.
어둠살 드리워도 또 드리워도
정한 넋 되새기며 지키는 자리
다시금 떠오르는 영겁 보름달
씨앗과 열매들의 연이은 고리
오늘은 여기에서 이 모습으로
내일은 저기에서 저 모습으로
삼업따라 몸 바꾸는 천변만화신
그 사람은 갔어도 빛덩이 남아
꽃피고 새우는 봄 숲속 길 내고
구름끼고 어둔 날 마음불 켠다.

윤회의 삶 불꽃에 활활 타올라
한줌 재로 온 자취 거두어 들여
다시금 새싹으로 돋아 오른다.
찰나찰나 옮겨가는 새로운 천지
산다는 건 영겁의 길을 가는 것
생명의 날줄 씨줄 베짜기로다
나부끼는 깃발 향해 달음치는 길
내딛는 자국마다 연꽃이 핀다.

● 히말라야 雪音

안무 / 이윤자
시 / 석지웅
음악 / 신영순
춤 / 이윤자 , 한광수 , 전영주
이현주 , 김미자 , 이경화
강경민 , 김숙희 , 박길미
김영숙 , 이경림 , 이경수

희미하게
더 흐밋하게 서성대는
눈발 사이로 살이 흔들린다.
한 줌 먼지로 흩어질
먼 살에 부딪치는
눈의 살
우리는 젖어
엎어진 세포를 한겹씩
뜯어내며
얼음보다 찬 핏물에서
자란 뜨거운 눈물을 몰이하고
서러움 덕지덕지 응고 된
뼈에게로 간다.
먼지보다 잘게 부셔지며
지친 눈물이 닿을 때 마다
희게 살아 솟구치는
춤기둥
타고 도는 한 끝을
깊게 뿌리치면
몸부림치다
자지러지는
뼈들의 빛나는 전율
흐밋하게
더 희미하게 살아도
히말라야엔
끝내 녹지 못해
아직도 눈발만 흩날리고.

李允子는 50년 부산 출생으로 세종대학교(수도여자 사범대학)무용학과에 입학하면서 한영숙(인간문화재)선생께 전통춤을, 김천흥(인간 문화재)선생께 궁중정재를 사사 받았다. 그리고 국립대만사범학교 교육대학원, 문학대학원 석사과정, 박사과정을 통해 동양 예술사를 연구하였다.

문화교류로서는 臺灣家政大學교환교수, 국립대만예술대학 중국문화대학에서 우리전통춤을 강의하여, 우리민족문화를 널리 알렸다.

80년부터 세종대학교 무용학과에 출강하면서 無爲無相의 至舞論에 입각한 춤세계를 정립코저 노력하고 있다.

83년도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신설과 더불어 무용학과에 재직하면서, 우리 춤의 藝와 術과 道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시켜 학생들을 지도하여 여덟번째의 졸업생을 배출시켰다. 89년부터 춤의 뜻이 하나로 이어지는 제자들로 구성된 "燕亭춤 모임"을 조직하여 전통의 脈을 전승 시키려하고 있다.

77년 첫 개인 춤판 "李允子 춤"을 시작으로 2회(83년), 3회(84년), 4회(85년)에 5회(90년) 거쳐 "李允子 춤" 공연을 가졌다.

86년 "사물놀이와 李允子 춤"의 만남을 통해 실험적인 즉흥무대를 가졌고, 제1회 한국무용제전(85년)에 "꿈풀이"를 출품하였다. 제75회 무형문화재 정기공연(86년) "李允子 전통춤"을 가졌고, 제19회, 20회 인간문화재전(88년, 89년) 중요문화재 제27호 "승무" 평가공연에서 "스승의 법제를 그대로 이어 받은 좋은 재기를 발휘…,"(월간 문화재 성경린)하였다는 평을 받았다. 이후 88년 서울 국제무용제에 "생명의 바람은 꽃불이어라"를 출품하였고, 그외 주요작품으로는 "白淨舞""봄이 봄이 뜰앞에 왔는데 아직은…,""참됨""여행자""몸소리 듣는가?""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 등 다수가 있다.

90년 碧史 韓英淑선생 추모 1주기 기념춤판을 열어 스승의 脈을 잇고저 하였다.

92년 하와이대학교, 힐로대학으로 부터 한국 페스티발"전통 예술제"에 초청되어 우리 전통춤 및 세미나에 참석하여 우리 춤의 넋을 선양 하는데 힘썼다.

현재 중요무용문화재 제27호 "승무" 이수자이며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무용학에 부교수로 재직중이다.

Personal History

NATIONAL FISHERIES
UNIVERSITY OF BUSAN
599-1 DAEYEON-DONG, NAM-GU
BUSAN 608, KOREA

Lee Yun Ja

I was born on July 17, 1950 in the city of Pusan. I entered Dancing Dept., King Sejong Univ. receiving the special guidance of Korean traditional dances under Mrs. Han Yeung Sook (entitled to Intangible Cultural Treasure) and the instruction of palance dances from mr. Kim chun Heung (ditto). I completed graduate School, National Taiwan Normal Univ. in 1979 and finished the doctor course there, specialized in the Oriental Art History in 1980.

In 1974 I was appointed as an exchange professor at Taiwan Home Economics College and as a lecturer at china Cultural Univ. as well from 1975 to '79, propagating Korean traditional dances and Korea hereditary cultures.

After 1979 I instructed at Dancing Dept., King Sejong Univ. much interted in Zen and stroke out a path of my own dancing sphere based on "an ultimate dancing theory" freeing from worldly bondages.

While I was at Dancing Section, Art College, National Pusan Univ. as a professor, I made revaluation of the art and techniques of Korean dancing and produced lots of able graduates.

from 1989 onward "Yeun Jeung Dancing Group" has been organized consisting of the disciples under my supervision, exerting ourselves to inheriting Korean innate dances.

In 1977 I performed the 1st round "Lee Yun Ja Korean Dancing", the 2nd round('83), the 3rd round('84), the 4th round('85), and the 5th round('90) in succession and in 1986, set an experimenral improptu stage displaying "An Interpretation of a Dream".

In 1990 I made the dance concent commemrnating the late Mrs. Han Yeung Sook to succeed the vein of her excellent art inheritance.

In 1986 I performed "Lee Yun Ja Traditional Dancing" at the invitation of the 75th Intangible Ciltural Treasure Periodical Performance and got the credit to the effect that I have succeedal the dancing principle from my master...(cited from a review by Mr. S. K. Lin in montly, "Culture Treasure")

In 1988 I displayed "Life's Whirlwind turns to a Fireball" along With "Spring has come and yet", "Genuine", and ather my accasional performances are "Travellens", "Heaning the voices", Heavenly Uoices fallcing in Lotuses".

In 1992 I was invited to the 90th anniversary of Korean immugration under the auspices of Univ. of Hawaii at Manoa and Joined two seminars including the topics on the Salpuni dance and the Buddist dance of Korea, making the special concert that features a master dancing performance.

I am at present an assistant professor, Dancing Section, Art College, National Pusan Univ. and entitled to the senior inheritor of the classic "Bonze Dance" pertaining to No.27 Intangible Cultural Treasure, besides a director of Korean Ballroom preservation

태 평 무

諸行無常 - 늘 새로운 현재여!

히말라야 雪音

안 무
李 允 子

음 악
신 영 순

의 상
이 수 동

무대감독
권 영 준

조 명
신 상 준

춤
이윤자 연정 춤모임

진 행
김 미 자